

요약

최근 정부는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허용하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복지금융의 역할 강화를 예고함. 미국이나 일본은 생명보험신탁이 일반화되어 있는 등 신탁재산의 허용범위가 포괄적이거나, 우리나라는 투자성 및 실물 재산을 중심으로 신탁을 허용해 왔음. 상속재산과 치매 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초고령사회에서 신탁시장 규모의 확대가 예상됨. 이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의 신탁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고 치매 노인 및 고령층에 대한 종합재산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탁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정부는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허용하는 등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복지금융의 역할 강화를 예고한 바 있음¹⁾
 - 최근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4. 3. 19 ~ 4. 29)를 통해 일반사망보험에 한해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²⁾으로 허용함에 따라 위탁자 사후에 피부양자의 재산관리를 더 두텁게 보장할 수 있게 됨
- 그동안 우리나라의 신탁 형태는 퇴직연금 자산에 대한 특정금전신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신탁 등 투자성 및 실물 재산을 중심으로 신탁이 가능하였으며 보험금청구권과 같은 보험성 재산은 허용되지 않음
 - 신탁계약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자 계약구조로 운영되며, 특정금전신탁으로 운영되는 퇴직연금을 예로 들면, 회사(위탁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금융기관(수탁자)이 이를 운용하여 그 성과를 근로자(수익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형태임
 - 인구구조 변화가 재산 및 금융 수요의 변화를 초래하고, 노후자산관리의 필요성 또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사망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신탁 허용은 이러한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특히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식이 취약한 고령층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금리·물가 변동과 같은 거시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신탁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신탁자산(수탁고)은 2023년 말 1,302조 원으로, 경영 신탁회사(46개 금융기관)는 909조 원(전체 대비 70%), 전업 신탁회사(14개 부동산신탁회사)는 402조 원(전체 대비 30%)을 차지함
 - 업권별 수탁고 점유율을 살펴보면, 은행업 48.2%(632조 원), 증권회사 19.3%(252.8조 원), 보험회사 1.8%(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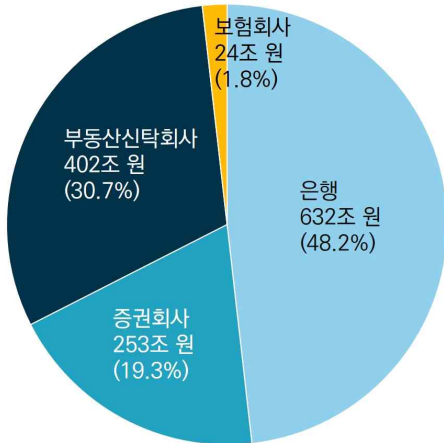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 3. 19), "자선운용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 자본시장법 103조의 신탁재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으로 설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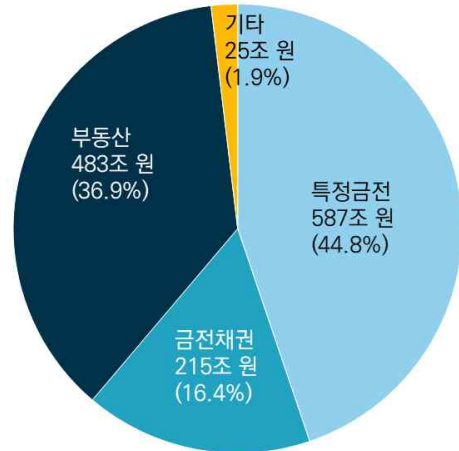
조 원), 부동산신탁회사 30.7%(402.1조 원)로 은행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보험회사의 비중은 가장 낮음

- 신탁재산 유형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특정금전 44.8%(587.2조 원), 부동산 36.9%(483.3조 원), 금전채권 16.4%(215조 원), 기타(유가증권 등) 1.9%(25.2조 원)로. 특정금전신탁의 비중이 가장 높음

〈그림 1〉 업권별 수탁고 비중



〈그림 2〉 신탁재산별 수탁고 비중



주: 기타는 불특정금전신탁, 유가증권, 종합재산신탁 등을 포함함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 4. 11), "2023년 신탁업 영업실적"을 참고하여 정리함

○ 급격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규모와 함께 치매 고령자 수의 증가는 신탁 대상 재산 및 위탁자의 증가 등 신탁시장 규모의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상속재산은 2023년 39조 원으로 2018년 20.6조 원 대비 89.3% 증가하였고, 2021년, 2022년에 상속 재산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를 예외적으로 본다면 상속재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매 인구수는 2016년 66만 명, 2024년 100만 명 수준에서 2050년 3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어 치매로 인한 재산관리의 어려움은 신탁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표 1〉 연도별 상속재산 변화 추이

(단위: 조 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상속재산가액	20.6	21.5	27.4	66.0	56.5	39.0
2018년 대비 증가율	-	4.4	33.0	220.4	174.3	89.3

자료: 국세통계포털/국세통계조회/국세통계/6-1-2. 상속세 신고 현황II(총상속재산가액 등)을 참고하여 정리함

- 이러한 신탁수요 증가는 금전신탁뿐만 아니라 재산신탁을 포함한 종합재산신탁의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적극적 신탁업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
 - 최근 교보생명이 재산신탁업을 인가받음에 따라 보험업권에서는 생명보험회사 5곳(미래에셋, 삼성, 한화, 흥국, 교보)이 종합재산신탁이 가능하고, 손해보험회사 2곳(삼성화재, KB손해보험)은 금전신탁에 참여하고 있음³⁾
 - 종합재산신탁이란 하나의 계약으로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특수재산 등 여러 재산을 통합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신탁업으로, 이에는 유언대용신탁,⁴⁾ 증여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등이 포함됨

- 미국이나 일본 등은 신탁재산으로 대부분의 보험금청구권을 허용하는 생명보험신탁(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이 일반화되어 있는 등 신탁재산의 허용범위가 포괄적임
 - 미국은 전통적 신탁재산 외 사망보험청구권뿐만 아니라 상해·질병보험과 같이 혼합형의 보험금청구권까지 신탁재산으로 인정하는 등 신탁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⁵⁾
 - 일본 또한 2004년 신탁업법 개정, 2009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치매, 장애 등 사회복지 관련 신탁과 더불어 부양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함
 - 특히 2012년 치매 노인 등의 재산을 후견인 대신 신탁을 통해 관리하는 후견제도지원신탁, 2013년 교육자금을 신탁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교육자금증여신탁, 2015년 자녀 결혼·출산·육아 자금을 신탁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결혼·육아지원 신탁 등의 도입 과정에서 유언대용신탁 계약 등 사회복지 관련 신탁이 급격히 증가함⁶⁾
 - 2023년 기준 미국, 일본의 신탁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 일본의 경제규모(GDP)는 우리나라에 비해 각각 16.0배, 2.5배⁷⁾이나 신탁자산 규모는 각각 32.6배, 11.1배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신탁자산 규모는 작은 실정임
 - 2023년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신탁자산은 각각 33.2조 달러,⁸⁾ 1,598조 엔(11.3조 달러),⁹⁾ 1,310.7조 원(1.0조 달러)¹⁰⁾으로 집계됨¹¹⁾
 - 이를 GDP 대비 신탁수탁고 비중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2023년 기준 일본 269%, 미국 121%, 한국 60%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신탁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향후 신탁 시장은 확대될 가능성이 큼

-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사망보험뿐만 아니라 상해·질병보험에 대해서도 보험금청구권의 신탁 범위를 확대하고 나아가 치매 노인 및 고령층에 대한 종합재산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탁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4. 11), “2023년 신탁업 영업실적(잠정)”

4)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위탁자)이 금융회사(수탁자)에 현금·유가증권·부동산 등의 자산을 맡기고 살아있을 때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후 미리 계약한 대로 자산을 상속·배분할 수 있음(수익자와 사후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음)

5) 양희석(2019),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법적 문제』, 법학석사학회논문, 서울대학교

6) 서병호(2021), 「고령화 시대 유언대용신탁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 『금융브리프 금융포커스』, 한국금융연구원

7) 2023년 기준 미국 27.36조 달러, 일본 4.21조 달러, 한국 1.71조 달러로,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과 일본의 경제규모 배율은 각각 16.3배, 2.3배 수준임(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4년 4월 데이터 기준)

8) FDIC(2024), “FDIC Quarterly 2024”, Volume 18, Number 1

9) Shintaku-kyokai, 全国信託財産調 (毎月) 全国信託財産調 (毎月)-2023년12月末現在

10)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4. 11), “2023년 신탁업 영업실적(잠정)”

11) 2023년 환율 1달러=141.2엔=1,288원을 적용함(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8)

- 일본 사례에서 보듯 초고령사회에서 발생할 건강·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관련 신탁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가 요구됨
- 나아가 베이비부머가 후기고령자로 진입하는 시점부터는 고령층의 신탁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산업에서는 고객의 다양한 신탁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종합재산신탁에 대한 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